Market Condi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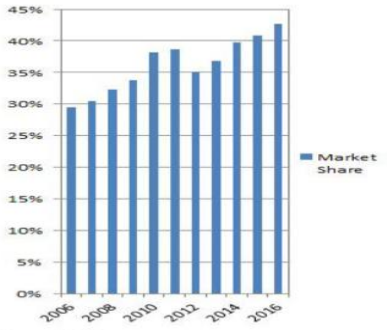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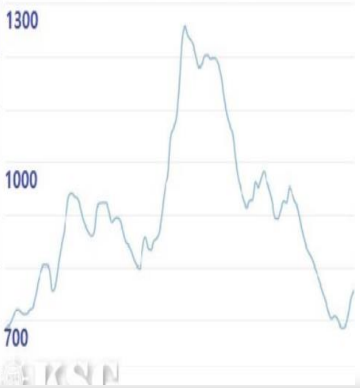
『Month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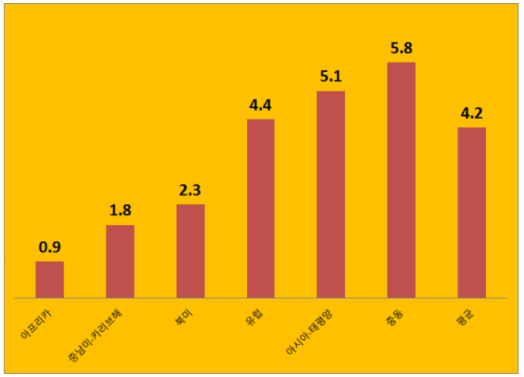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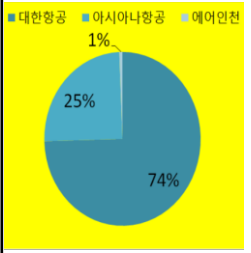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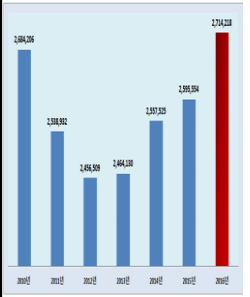
March 2017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er
최 성 수 대리 / 010-3144-2110

Contents

01. 해운
02. 항공
03. 경제
04. 무역
05. 화학
06. 철강

구 분		시 황	각종 지수 (시황 상세)
해 운	중 국	◆ **한중항로/ 운임회복 드라이브 계속된다** - SM상선 취항 '항권 유효성' 논란 / 2월 접어들며 평년 수준의 물동량 회복세 - "황해 정기선사 협의회 " 에서 장기계약화주 대상으로 GRI시행 - 수출화물기준 20FT기준으로 50불 인상 / 수입운임도 상승곡선 <출처 : 코리아쉬핑가제트>	• 국제유가 현황 (단위 : $/ 배럴) WTI 02.24. 53.99 ▼ 0.46(-0.84%) 두바이유 02.24. 54.38 ▼ 0.03(-0.06%) 브렌트유 02.24. 55.99 ▼ 0.59(-1.04%) <출처 : 뉴욕상업거래소(NYMEX) - WTI, 두바이 런던국제거래소(ICE) - 브렌트>
	중남미 & 북미	◆ **중남미항로/ 트럼프효과? 춘절이후 운임 반토막** - 춘절 전 물량 밀어내기 끝나며 비수기 돌입 (일반적인 현상) - 전월 대비 운임 및 선사의 소석률 (선복대비 화물적재율) 하락 - 중남미 운임은 동 서안 모두 큰 폭으로 하락 / 선박 대형화에 따른 공급과잉 - 4월 얼라이언스 재편의 영향으로 선박의 전환배치가 가시화 <출처 : KSG> **★북미항로/ 비수기 운임하락세 전환…SM상선 등판** **- 3월1일 FEU당 600달러 GRI** - 선사들이 임시결향으로 운임회복에 나섰지만 불발 / 운임하락에도 불구 소석률↑ - 한국발 운임이 100불이상 떨어지고 있는 상황, 3/1부로 $ 600 / FEU 시행계획 - 3월 1일부로 선사들은 FEU당 600달러 GRI를 시행할 계획 - SM상선 4/16 북미서안 CPX서비스시작 / 얼라이언스 재편으로 정시성 하락 예상 <출처 : KSG>	 ▲ 북미 동향항로 연도별 포워더(NVOCC) 시장 점유율 ← 북미항로 선사 포워더 의존도 "43%" 증가
	구 주	◆ **구주항로/ 춘절 특수 끝나도 운임·소석률 '안정'** **- 2M, 4월 북유럽 신규 서비스 개시** - 선사들이 임시결항(블랭크세일링)으로 선복 일시적으로 줄이면서 운임하락을 방어 - 현 시점의 운임 수준을 유지할 것 / 2M 얼라이언스 북유럽 신규서비스 AE7 시작 <출처 : 한국해운신문>	**건화물선 운임지수** **최근 6개월간 BDI 추이** 날짜 BDI BCI BPI BSI 2. 23 856 1134 927 797 2. 22 806 951 908 783 2. 21 778 856 906 764 2. 20 757 791 909 747 2. 17 741 739 917 729 2. 16 710 620 923 707 
	동남아	◆ **동남아항로/ 선사들, 'SM상선 HMM+K2' 행보에 관심 증폭** - 베트남·태국·인니 운임회복 시동 / SM상선의 동남아 시장 공략 본격 시작 → 선사 동맹은 1분기 운임 수준을 $100/$150 인상할 계획 - 최근 한국발 인도네시아·베트남행 설비 물량이 크게 늘고 있어 인상 가능성 높음 <출처 : 카고뉴스>	

구 분		시 황	특이사항
항 공	동 향	◆ **작년 성수기 세계 항공화물 시장 "성공적"** ▪ 하반기 수요가 전반적인 상승세 견인차 역할 - **작년 세계 항공화물 평균 4.2% 성장** - 가장 급격한 성장세를 기록한 지역은 중동 5.8% ↑ - 하반기 전반적인 상승은 유럽을 비롯 중동,아시아가 주도 - 작년 하반기 부터 꾸준한 항공화물의 수요 증가세 <출처:카고뉴스>  ▲ 2016년 지역별 국제선 항공화물 성장세 ◆ **항공업계 빅3, 각기 다른 셈법으로 기재 경쟁력 강화** ▪ 국내 항공사 '빅3'가 앞다퉈 기재 경쟁력 강화에 나서 - 대한항공은 '드림라이너(Dreamliner)'로 불리는 차세대 항공기 B787-9 1호기를 인천국제공항에 인도 - 대한항공은 장거리 노선 강화에 나설 방침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중·대형기종 도입으로 중·장거리 노선에서 서비스 차별화를 이뤄낼 것" <출처 : 카고뉴스>	* **화물기 공급** KE 74% > OZ 25% * **임차기** 대한항공 24대 아시아나항공 5대 
	I S S U E	◆ **아시아나항공 "B747-400F" 화물공급 확대** - 포괄임차계약(ACMI)체결 / 아틀라스항공 발표 - 인천-미주 노선 단일 화물기 계약은 최초 - 높은 수준의 화물서비스를 통해 고객만족 극대화 ◆ **'화물수송', 올해 항공업계 새 수익원 될까** ▪ 지난해 IT 반도체 등 제조장비 수요 증가로 물동량↑ ▪ 업계 "올해 업황 부정적…LCC 비용부담 문제로 화물 사업 주력 불가 " - 항공 화물 실적이 연일 상승세 / 최근 유가상승 및 각종 정치적 이슈들은 변수 - 여객 노선이 늘면 화물 물동량도 늘기에 부대수익 수준으로 운영해 나가는게 일반적인 행태 <출처 : 항공뉴스>	

구 분	내 용
산 업 & 경 제	

◆ **회복세를 보이는 파라과이 수출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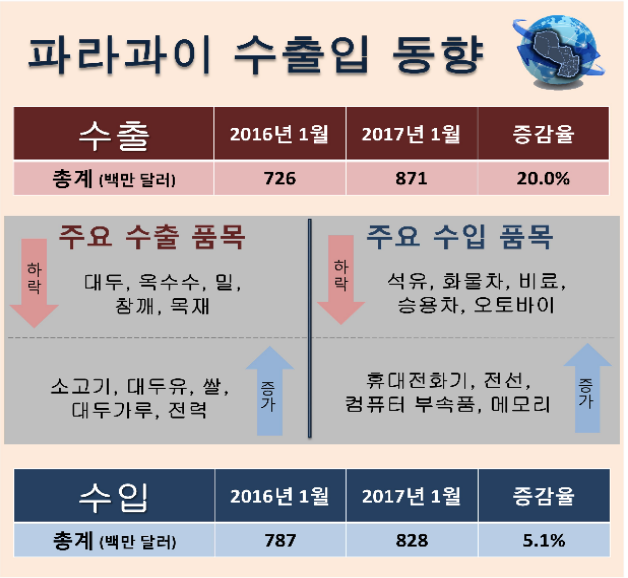
- 2017년 1월 기준, 전년동기대비 수출 5%, 수입 20% 성장 기록
- 브라질 경제 회복으로 국경상업 상황 개선 -
- 브라질 경제 상황 개선에 따른 파라과이 무역 회복 전망
- 파라과이 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가격경쟁력 확보 필요
- 마킬라 제도를 활용한 파라과이 및 주변국 시장 진출 효과적

파라과이 2016~2017년 1월 주요 수입국

(단위: 천 달러, %)

순위	국가	2016년 1월		2017년 1월		2016년 전체 점유율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합계		726,350	-19.2	871,572	20.0	100.0
1	중국	174,445	-29.4	258,698	48.3	24.8
2	브라질	149,443	-28.4	207,651	39.0	21.3
3	아르헨티나	103,725	-13.0	112,858	8.8	14.8
4	미국	60,193	-7.0	57,562	-4.4	8.6
5	한국	29,876	20.8	26,322	-11.9	4.3
6	독일	15,029	-35.8	22,169	47.5	2.1
7	일본	15,561	-22.9	16,223	4.3	2.2
8	인도	11,007	-15.7	14,389	30.7	1.6
9	멕시코	13,441	-11.0	13,781	2.5	1.9
10	칠레	8,459	-13.7	11,944	41.2	1.2

자료원: Penta Transaction Online



자료원: 파라과이 중앙은행(BCP)

◆ **캐나다, 트럼프 효과에 웃을까?**

- 키스톤 XL 파이프라인(Keystone XL Pipeline) 사업 등 석유 및 에너지분야는 긍정적
- 비석유분야 수출품목, 높은 가격탄력성으로 큰 타격 예상
- 트럼프의 강력한 반이민자 정책으로 해외 우수기술인력 유치에서 캐나다 반사이익 기대
- 마킬라 제도를 활용한 파라과이 및 주변국 시장 진출 효과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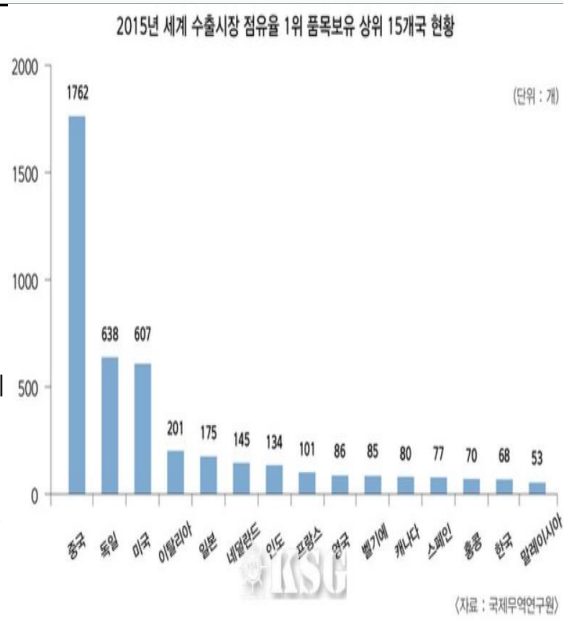
<출처 : KOTRA>

2016년 미국의 무역 국가별 비중

Rank	Country	Exports	Imports	Total Trade	Percent of Total Trade
---	Total, All Countries	1,327.9	2,005.0	3,332.8	100.0%
---	Total, Top 15 Countries	933.5	1,563.3	2,496.8	74.9%
1	China	104.1	423.4	527.6	15.8%
2	Canada	245.6	254.8	500.4	15.0%
3	Mexico	211.8	270.6	482.5	14.5%
4	Japan	57.6	120.0	177.6	5.3%
5	Germany	45.0	104.6	149.6	4.5%
6	Korea, South	38.0	64.5	102.5	3.1%
7	United Kingdom	51.1	49.6	100.6	3.0%
8	France	28.0	43.2	71.2	2.1%
9	India	19.6	42.6	62.1	1.9%
10	Taiwan	23.4	35.9	59.4	1.8%
11	Italy	15.2	41.1	56.4	1.7%
12	Switzerland	20.5	33.1	53.6	1.6%
13	Netherlands	37.0	14.8	51.8	1.6%
14	Brazil	27.7	23.7	51.4	1.5%
15	Ireland	8.8	41.5	50.2	1.5%

자료원: U.S. Census Bureau

구 분	내 용
무 역	※ **세계 수출시장 중국 '독주' 한국은 '정체'** → 中 2015년 1위 품목 1762개, 한국은 68개 불과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발표한 '세계 수출시장 1위 품목으로 본 우리 수출의 경쟁력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에 중국은 전체 5579개의 품목 중 31.6%에 달하는 1762개의 품목이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했다. 세계 1위 품목 최다 보유국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냈다. 또한, 세계 1위 품목을 전년대비 128개 추가하면서 빠른 속도로 세계 1위 품목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중국의 뒤를 이어 독일이 638개 품목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해 품목수 2위를 차지했다. 미국은 607개로 3위를 지켰다. 중국 미국 영국은 지난해에 비해 세계 수출 1위 품목이 각각 128개, 50개, 3개로 증가한 반면, 독일과 일본은 70개, 4개가 감소했다. 2014~2015년 2년 연속으로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는 품목은 모두 50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 보면 주로 화학제품, 철강제품, 특수선, 탱커, 메모리반도체 등이다. 이들 품목 중 최근 5년간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1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품목은 모두 26개로 화학제품, 메모리반도체, 자동차 부품, 탱커다.



<출처 : KOTRA, 주간무역>

우리나라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1위 품목별 추이

(개, %)

품목	2011		2012		2013		2014		2015	
화학제품	15	(24.6)	19	(29.2)	21	(30.9)	22	(32.8)	22	(32.4)
철강	13	(21.3)	10	(15.4)	11	(16.2)	11	(16.4)	12	(17.6)
섬유제품	8	(13.1)	7	(10.8)	8	(11.8)	6	(9.0)	9	(13.2)
비전자기계	3	(4.9)	5	(7.7)	5	(7.4)	7	(10.4)	7	(10.3)
수송기계	4	(6.6)	3	(4.6)	3	(4.4)	4	(6.0)	5	(7.4)
전자기계	6	(9.8)	7	(10.8)	7	(10.3)	7	(10.4)	4	(5.9)
가죽·고무·신발·여행용품	5	(8.2)	4	(6.2)	5	(7.4)	5	(7.5)	4	(5.9)
수산물	2	(3.3)	5	(7.7)	3	(4.4)	3	(4.5)	2	(2.9)
농산물	2	(3.3)	2	(3.1)	1	(1.5)	0	(0.0)	1	(1.5)
광산물	1	(1.6)	2	(3.1)	2	(2.9)	1	(1.5)	1	(1.5)
나무·펄프·종이·가구류	1	(1.6)	1	(1.5)	1	(1.5)	1	(1.5)	1	(1.5)
기타 제조품	1	(1.6)	0	(0.0)	1	(1.5)	0	(0.0)	0	0.0
총계	61	(10 .0)	65	(10 .0)	68	(10 .0)	67	(10 .0)	68	(10 .0)

주 : ( )내는 비중
자료 : UN Comtrade

구 분	내 용
화 학 (CHEMICAL)	◈ 국제유가 상승, 비OPEC 감산이행률 60%…나프타 하락 → OPEC 모니터 "OPEC 90%, 비OPEC 60% 감산이행 중" // 17일 미 원유시추수 597기, 셰일오일 생산 계속 증가 국제유가가 산유국의 높은 감산이행률로 상승했다. 하지만 미국 원유시추 수 증가, 달러화 강세는 하락요인이 되고 있다. 27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2월 셋째주(16~23일)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주보다 배럴당 1.09달러 오른 54.45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브렌트유(Brent) 가격은 전주보다 배럴당 0.93달러 오른 56.68달러를 기록했다. 중동 두바이유(Dubai) 가격은 전주보다 배럴당 0.8달러 오른 54.75달러를 기록했다. OPEC 모니터링위원회(JTC)는 OPEC과 비OPEC의 1월 감산 이행률이 86%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OPEC은 90%, 비OPEC은 60%로 나타났다. OPEC 모하메드 바르킨도 사무총장은 21일 영국 국제석유주간(IPW) 컨퍼런스에서 "OPEC과 비OPEC 산유국의 감산 이행으로 올해 원유재고가 더욱 감소할 것"이라며 "모든 참여국들이 보다 높은 수준으로 감산 합의를 이행하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 : EBN 화학뉴스> ◈ "ESS가 뜬다"…한국 ESS산업 세계 주도, 수출 효자로 부상 → 세계 ESS시장 2025년 292억달러로 성장 // 정부 육성정책 총력 … LG화학 ,삼성SDI, SKI노베이션 역량 집중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ESS(에너지저장장치)가 배터리산업의 미래로 부상하고 있다. LG화학과 삼성SDI는 중국 배터리사업 리스크에 대한 대책으로 올해 ESS 사업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SK이노베이션도 ESS용 셀 공급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커다란 배터리' 다분야 활용, 국내시장 연 10% 성장 / LG화학·삼성SDI 중국 셀 ESS로 전환, 세계시장 본격 공략 <출처 : KOTRA> ◈ 보호무역주의 득세…한국산 화학·철강 수입규제 증가 → 지난해 하반기 7개국 한국산 화학제품 11건 반덤핑 제소 // 2016년 말 기준 28개국 총 180건, "수출품목 및 시장 다변화 필요" 미국 보호무역주의 등 전 세계적으로 자국 우선주의가 확산되면서 우리나라의 화학·철강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가 증가하고 있다.

〈(표 1) 2016년 하반기 신규규제 조사개시 현황〉

('16.7월~12월) / (단위, 건)

규제 국가 (총 14개국)	미국(2), 인도(2), 중국(2), 터키(2), 파키스탄(2), 남아공(1), 멕시코(1), 베트남(1), 요르단(1), 인도네시아(1), 캐나다(1), 태국(1), EU(1), GCC(1)
규제 품목 (총 19건)	철강금속(7), 화학(11), 기타(1)
규제 형태	반덤핑(14), 세이프가드(5)

〈(표 2) 對韓 수입규제 현황〉

('16.12월말 기준) / (단위, 건)

규제 국가 (총 28개국)	인도(32), 미국(23), 중국(13), 태국(12), 브라질/터키(각 10), 인도네시아/캐나다(각 9), 말레이시아/파키스탄/호주(각 7), EU(6), 베트남(5) 등
규제 품목 (총 180건)	철강금속(87), 화학(57), 섬유(12), 전기전자(6), 기타(18)
규제 형태	반덤핑(134), 세이프가드(39), 반덤핑.상계관세(7)

구 분	내 용
철 강 (STEEL)	

◆ **베트남 철강시장 동향과 전망**

*** - 성장 중인 베트남 철강산업, 하지만 비계획적 생산으로 무역적자 폭은 확대**

- 변칙적 방법 동원된 수입 증가… 철강재에 대한 수입규제 강화 우려 -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철강재 가격도 잇따라 인상 / 철강재 생산 • 소비 모두 2015년 대비 증가

수출 호조에도 철강 무역수지 악화 / 반가공 철강재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 제한적 효과 발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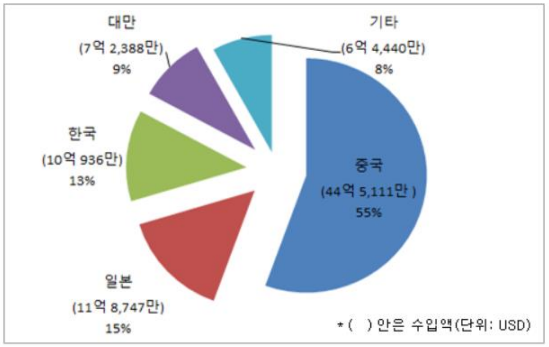
2016년 베트남의 철강재 수출입 현황

구분	수출			수입		
	2015	2016*	증가율(%)	2015	2016*	증가율(%)
금액(USD)	1,684,248,283	2,030,699,554	20.6	7,477,526,019	8,016,213,704	7.2
양(톤)	2,556,336	3,476,118	36.0	15,514,347	18,366,293	18.4

*주) 2016년 수치는 예비통계 기준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2016년 베트남의 주요 철강재 수입국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 2017년 전망**

1. 고로용 원자재(철광석, 코크스) 가격은 예년 수준으로 하락, 전기로 원자재(고철) 가격은 상승 전망
2. 원자재 가격 상승세와 투기세력 확대에 따른 철강재 가격 상승 예상
3. 베트남 민간 및 공공부문 건설경기 호황으로 건설용 강재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 전망
4. VSA, 반가공 철강재에 대한 수입규제조치 추가 발동 가능성 제기

<출처 : EBN철강신문>

◆ **철광석 가격 상승세 유지…중국 구조조정 기대 영향**

→ 니켈·우라늄·철광석 감산효과로 상승세 // 구리·유연탄 공급차질 우려에 하방압력

국제 철광석 가격이 중국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철강부문 구조조정 기대에 따라 상승세다.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주간 광물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 철광석 가격은 중국 칭다오항 수입가 기준 t당 83.58달러로 전주대비 0.6% 올랐다.

중국의 철강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가격회복 기대감과 계절성 건설수요 확대로 오히려 가격은 상승세로 전환됐다. 중국 주요항 철광석 재고량이 높은 점은 향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광물자원공사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감세정책 기대감에 따른 달러가치 상승과 중국의 단기 금리인상 단행으로 하방압력이 발생했다"면서도 "공급쇼크가 크게 부각되면서 광종별로 가격이 상승하거나 보합세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단위 : U$/톤 (우라늄:U$/lb, 탄산리튬:RMB/kg)

광종	연평균		주간평균		
	'15	'16	2.1주	2.2주	전주비(%)
동	5,495	4,863	5,890	5,838	△0.9
니 켈	11,807	9,609	9,986	10,400	4.1
아 연	1,928	2,095	2,820	2,827	0.3
연료탄	57.56	66.03	82.09	79.05	△3.7
원료탄	87.75	142.73	171.30	168.40	△1.7
철광석	55.71	58.36	83.05	83.58	0.6
우라늄	36.86	26.37	25.03	26.44	5.6
탄산리튬	47.91	125.21	113	113	-
산화세륨	2,849	1,712	1,735	1,735	-

▲ 주간 광물가격 동향,ⓒ한국광물자원공사

감사합니다

K2 LOGICS